

한국어·기술 겸비 유학생, 지역 제조업 주역 된다

- 법무부, 16개 전문대학 「육성형 기술학과」 지정
- 법무부장관, 현판·지정증 수여식 및 총장 간담회 개최
- 수도권·지방 균형 선정...연간 최대 800명 숙련 외국인력 공급 기대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 핵심 인력으로 정착시키는 ‘육성형 전문 기술학과’가 본격 출범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26일(목) 14: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 전문대학(16개교)에게 현판 및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 법무부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중간수준(언어·학력·기술)의 기술력을 갖춘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전문대학의 학과

이날 행사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16개 전문대학 총장 및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현판 수여 후에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K-CORE, E-7-M)」는 한국어 능력과 전문 기술력을 겸비한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제조업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어 요건(TOPIK 3급)을 갖춘 경우 유학 비자발급 시 필요한 재정요건이 면제되며, 시간제 취업 시간도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졸업 후 전공 관련 업체에 취업 시에는 취업비자(E-7-M)를 발급받으며, 향후 거주(F-2) 자격 신청 시에도 우대될 예정이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는 올해 3월부터 첫 수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에는 수도권 6개교와 지방 10개교가 고르게 선정되어, 인력난이 심화된 지역 제조업체의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800명의 숙련된 외국인 기술 인력이 지역 중소기업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대학에서 길러낸 우수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대학이 산업 현장에서 허리를 지탱하는 핵심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유학과 취업비자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학의 성장과 민생경제 활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재형 (02-2110-4105)
		담당자	사무관 김은호 (02-2110-4109)



지역	대학	전공
경기	경기과학기술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부천대	섬유판션비즈니스학과
	서정대	글로벌섬유판션비즈니스과
	오산대	전기공학과
	용인예술과학대	자동차기계과
대구	영진전문대	스마트CAD/CAM과
경북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공학부
부산	경남정보대	기계과
	동의과학대	기계공학과
	부산과학기술대	자동차과
경남	거제대	기계공학과
울산	울산과학대	기계공학부
전북	군장대	스마트농식품과
	전주비전대	미래모빌리티학과
전남	목포과학대	신재생에너지전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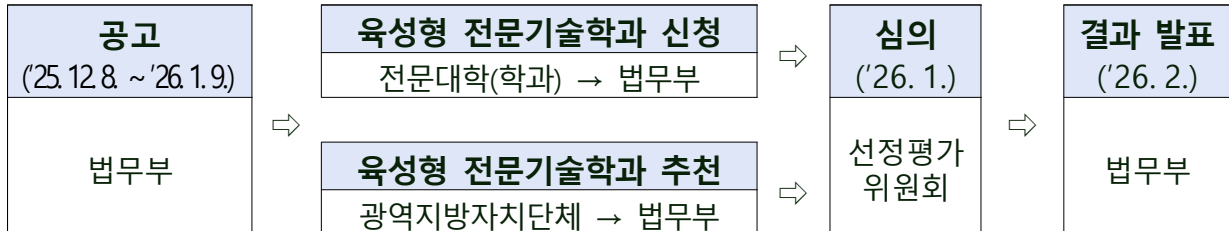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 육성형 전문학과를 지정
 - 해당 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취업 시 ^{신규}E-7-M (K-CORE) 비자* 발급
- * K-College to Regional Employment : 지역산업의 핵심(Core) 인력이라는 의미이며,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의 중간(middle-skill) 수준임을 고려하여 E-7-M 약호 부여

- (도입배정) 지역의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존 저임금 위주의 기존 외국인력 도입 구조를 적정임금에 기반한 장기 정주형 외국인력 양성 체계로 전환 유도
- (시범사업) '24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에서 인증대학 이상의 평가를 받은 전문대학(22개) 중 민관심의를 거쳐 16개 전문대학 내 학과를 선정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정보대, 구미대, 군장대, 대림대, 동의과학대, 목포과학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천대, 서정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예술과학대, 울산과학대, 전주비전대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 절차)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최종 지정(지정증 교부)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혜택) 한국어 능력(TOPIK 3급 이상)을 갖춘 유학생 입학 시
 - ① 재정능력 요건 면제, ② 재학중 시간제 취업 범위 확대(現 30시간 → 改 35시간) 등

- (졸업 후 취업) 해당 학과 졸업 유학생이 높은 수준의 한국어 요건(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등)을 갖추고, 전공관련 업체와 적정 임금(초임 연 2,600만원 이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K-CORE(E-7-M) 비자를 발급해 체류 지원

* 전문인력E-7-1(연 2,867만원, 이하 '25.기준)보다 낮고 최저임금(연 2,515만원)보다는 높은 숙련기능인력E-7-4 수준으로 설정(연 2,600만원)

- (장기 정주 유도) 졸업생이 E-7-M 비자로 ①5년 이상 계속 취업활동을 하거나 ②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거주(F-2) 자격 신청 허용